

# 나눔터



제 2 호

펴낸날 : 1991. 10.30

펴낸곳 : 한국성폭력상담소 / 주소 :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우137-600) / 사무전화 : 02)522-1042 상담전화 : 02)522-1040-1

## ‘성폭력특별법추진위’ 결성

매일같이 일어나는 강간사건으로 피해여성은 늘어만 가고 그들의 고통이 심각하지만 정작 가해 남성을 응징하고 재발방지의 도구가 되어야 할 현행법률은 너무나 미약하다. 성범죄자에게는 강력한 철퇴를 가하고 피해

여성의 법적·정신적 구제를 도울 특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김부남사건대책위〉〈대구여성회〉등 4개 단체는 지난 8월 21일 〈성폭력특별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면 계속)

## 주최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 보관용

### 〈차례〉

- |                                |                          |
|--------------------------------|--------------------------|
| 2 ·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호신술을 배웁시다 · 12           |
| 4 · 나눔터 만평                     | 나눔터 에긋글 : 손대지 마세요 ! · 13 |
| 5 · 컬럼                         | 논단 : 성의 역사 · 14          |
| 6 · 연재기획 : 강간, 바로 압시다 · 어린이성폭행 | 책이야기 : 강간당한 남자 · 15      |
| 7 ·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 지상상담 : 직장내 성폭행 · 15      |
| 8 · 기획기사 : 어린이성폭행 상담사례분석       | 알림판 · 16                 |

## 10월15일 현재 상담 1천여 건 달해

## 어린이성폭행, 상담 전체의 29%차지

4월 13일 개소 이후 10월 17일 현재 상담이 1천 여 건을 넘어섰다. 특히 8월 이후 김부남씨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어린이 성폭행에 대한 상담이 특히 증가했다. 9월말까지 통계를 보면, 전체 성폭행(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4백18건 중 1백23건이 어린이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성폭행 상담의 29%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성폭력은 부주의하거나 일부 행

동이 암전치 못한 여자들이나 당하는 것'이란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상담 사례 중 근친에 의한 성폭행이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버지, 의붓아버지, 삼촌, 오빠, 고모부 등 친인척에 의한 성폭행은 73건에 달해 성폭행 상담 건수의 17.5%로 나타난다.

그동안 상담에 대한 후속 활동을 보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두 명의 학생이 성폭행 당한 것으로 상담이 들어온 성산동의 7학교에 대해 성폭행에 대한 예방 대

책을 요구했다. 또 2대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2명의 경우 2대 총학생회와 협력, 대자보 및 서명 활동을 통해 강사가 자진 사퇴하도록 했다. 또 한 집에 거주하는 양할아버지의 성폭행을 피해 쉴 곳이 필요한 B양에게 은강회를 소개, 현재 미용기술을 배우며 학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아버지에게 수년동안 근친강간 당한 후 결혼했으나 남편의 구타와 학대 때문에 갈 곳이 없던 C엄마와 딸(2세)에게도 은강회를 소개했다.

한편 상담활동이 계속 되면서, 상담이 1회적인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로 이어지고 있다. 9월 30일 현재, 총 863건의 상담전화 중 174건이 재상담 전화이다. 앞으로 상담부(부장: 이명선)는 내담자를 지속상담으로 연결, 보다 체계적으로 심리적 극복을 도울 수 있는 면접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다.

## 상담전화분류

(1991. 9. 30 현재)

피해유형	가해자분류		피 해 자			소계
			성 인	청소년	어린이	
강간(329)	아는 사람 (206)	근 친	10	10	14	34
		친 척	10	5	2	17
		이 웃	16	12	18	46
		선배·친구	18	5		23
		데이트강간	14			14
		직장상사 직장동료	64	1		65
		선생님	1	1	2	4
		(채권자,목사) 기 타	2		1	3
	모르는 사람		38	24	28	90
강간미수(11)	윤 간		20	13		33
	아는 사람		2	1	1	4
혼인빙자(46)	모르는 사람		6		1	7
			46			46
성추행(78)	아는 사람 (60)	근친(의붓아버지포함)		3	10	13
		친 척	4	2	3	9
		이 웃	3	2	18	23
		직장	4	3		7
		선배(아는오빠)	3		1	4
		선생님	1	1	2	4
	모르는사람		6	5	7	18
재상담(174)			129	17	28	174
기타(225)	성 문 제		6		2	8
	장 난 전 화		3	2		5
	아내구타및의처증		3			3
	법 률 상 담		172	16	3	191
	협박·위협·납치		2			2
	기 타		16			16
총계(863)			596	123	144	863

한국성폭력상담소

\* 어린이는 13세 미만

현행법들 연속성, 실효성 적어  
성폭력 특별법 제정되어야

본 상담소 설립 초 부터 주요과제로 설정했던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은, 그동안 1천여 상담사례를 접하면서 더욱 그 필요성이 절감되었다.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뜻을 함께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구체적인 법제정 활동을 시작했다.

실제로 성폭력 관련법들은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에 분산되어 이들 사이의 연속성이 없고 법적 실효성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정조침해 차원에서 법적 규정인 현행법은 성폭행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개념이 바뀌어야 하고, 따라서 그 침해유형 및 정도에 따라 범죄의 구성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고소기간이 6개월인 점, 13세 미만 어린이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교정(치유)의 과정이라기 보다 미약한 형량의 부과 정도에 그치고 있음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법안의 제정만이 아니라 실제 고소과정에서 담당경찰, 재판부의 성폭력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법의 운용면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담



당자들의 연수과정에 성폭력에 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수사에서 재판까지 모든 절차의 비공개, 일정기관의 대리고소 인정 등이 요구된다.

성폭력특별법 추진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 성폭력 관련 법안들을 한데 묶어 영향력있고 일관성 있는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억울한 피해여성들을 구제하고, 나아가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자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그 첫 작업으로 지난 9월 9일, 입법활동을 위해 국회의원 및 정당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폭력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 차원에서 확대되어야만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각 정당에서도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추진위는 10월 31일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오는 11월 25일부터 1주일 동안 전세계적으로 제정한 <세계 성폭력 추방기간> 중 “성폭력 피해자 추모제”(한국여성의 전화), “어린이성폭행 추방을 위한 한마당”(본 상담소) 등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준비중인 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내년 4월 임시국회 때 제출할 계획이다.

## 김부남씨 항소하기로

2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살해한 김부남씨(30세)의 1심 재판이 지난 8월 30일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담당판사: 서태영)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사건발생 후 전북지역 11개 여성단체가 모여 만든 <성폭력피해자 김부남 사건 대책위원회> (대표 박상희)는 재판부의 유죄판결에 대해 김씨는 당시 9살 어린이로 방어능력이 전무했고, 21년의 시차는 있지만 그 21년의 세월은 고통의 연속이었으므로 정당방위로 봐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었고, 현재도 잔재성 정신분열증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 수많은 성폭력 피해여성들에게 이 판결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김부남씨는 무죄임을 주장하는 항소를 했다.

한편 김씨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도 하고 있다.



본 상담소는 그동안 김씨의 무죄석방을 위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김씨 면담(6월 26일), 재판부에 진정서 제출(7월 3일), 매회 공판 참관 및 기자회견 참석, 담당판사 면담(8월 26일), 그리고 전주에서 열린 <김부남 사건과 어린이성폭력>에 관한 공개토론회 참석(9월 5일) 등 김씨의 각종 구명운동에 참여하면서 <김부남 대책위>와 함께 활동해왔다.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항소 중인 김씨를 위해 본 상담소는 김씨 후원회에 가입하여 무죄석방을 위한 서명운동 및 후원금 모금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를 기대한다.

<모금구좌>

국민은행 : 509-01-0211-998, 김부남

## 「어린이성폭행」 세미나 가져

본 상담소에서는 지난 8월 9일, 10일 이틀에 걸쳐 ‘어린이성폭행’을 주제로 내부 세미나를 가졌다. 이는 김부남씨 사건 이후 어린이성폭행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본 상담소의 성폭행 상담건수 중 29%가 어린이성폭행이라는 심각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상담부(부장: 이명선)와 조사연구부(부장: 전연희, 박선미)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발기인, 상담원,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세미나에서 다루진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8월 9일: 어린이성폭행 신문기사 분석, 본 상담소 어린이성폭행 사례 분석.

8월 10일: 어린이성폭행의 개념과 형태, 원인, 근친강간, 어린이성폭행 피해자의 치유책, 어린이성폭행 예방책, 어린이성폭행 관련 외국 브로셔 검토.

이번 어린이성폭행 세미나를 통해서 다루진 내용들은 재정리하여 어린이성폭행에 관한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 이대 축제에서 강간위기 알리는 호루라기불펜 판매

이화여대에서는 가을 학술제 기간 중 ‘강간위기를 알리는 호루라기불펜’ 판매와 더불어 ‘밤길이 두렵지 않으니까’라는 제목 아래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 및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알리는 소개행사를 하여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를 통해 1백 50여개의 불펜을 판매했으며, 수감 중인 김부남씨를 위한 모금활동도 벌였다. (사진)

## 여원사로부터 후원금 받아

여원(발행인: 김재원)사는 ‘매맞는 여성’을 위해 개최했던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 중 7백만원을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뜻깊은 일에 써달라며 8월 9일 본 상담소에 기금으로 전달했다. 이날 기금은 본 상담소를 비롯, <은강회>, <한국여성의 전화> 등 세 여성단체에 전달되었다.

## 8,9월에 방송, 잡지 등에 활발한 홍보활동

8월 17일, MBC라디오 「여성시대」, 8월 27일, KBS라디오 「가로수를 누비며」를 비롯하여, 9월 KBS-TV 「자녀교육 365일」, MBC-TV 「아침의 창」 등에 본 상담소 대표 및 상담원들이 출연하여 성폭력 실태 및 심각성을 알리고 그 대처방안을 홍보했다. 이밖에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일간지와 각 대학학보, 각종 전문지, 월간지, 지역신문 등에도 인터뷰 등을 통해 상담소 활동을 알렸다. 그리고 발기인, 상담원, 상근자들이 성폭력문제를 올바로 인식시키기 위해 이대학보, 월간「말」, 순천대학교, 성대 영자신문, 서강대 영자신문, 서울대학교원신문 등 각 대학신문, 여러 월간지



제1기 상담원교육  
수료식에서  
피해여성들에게 진정한  
힘이 될 것을 다짐하며

리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어야  
하므로 모두들 긴장과 사명감으로 교육에  
임했다. 이번에 배출된 18명의 상담원들은  
오는 12월까지 2달동안 상담소에서 직접  
상담실습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본  
격적으로 상담활동을 하게된다.

제2기 상담원교육은 내년 4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사진)


### 후원회원 배가운동실시

총무부(부장: 임순영)는 재정확보와 상  
담소 활동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후원회원 배가운동'을 전개하고 있  
다. 이를 위해 지난 9월에 현 후원회원 1백  
7명에게 가까운 친지, 이웃 중에서 상담소  
의 취지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후원회원 가입을 권유할 것을 내  
용으로 하는 신규 회원모집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앞으로 발기인, 각 신문사와  
잡지사의 여기자들, 서초구 의원 등에게도  
후원회원 가입 요청서를 우송할 예정이다.

등에 성폭력에 관한 글들을 발표했다.

육생과 자원봉사자 2명을 포함한 18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받았으며, 1차때와는 달

### 본 상담소 심볼 결정, '여성들의 자매애'상징

본 상담소 심볼이 로 정해졌다.

심볼의 색깔은 '여성'과 '자매애'를 상  
징하는 자주색이다.

모양은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양쪽에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  
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  
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제1기 상담원교육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상담에 들어가

1991년 8월 20일부터 10월 8일까지 8주  
에 걸친 1기 교육생의 2차교육(상담원교  
육)을 마치고 10월 9일 본 상담소에서 수  
료식을 가졌다. 2차교육내용은 상담의 원  
리와 기법, 여성중심 상담이론, 의학적 대  
응방안(산부인과, 소아정신과, 법의학), 법  
적 절차 및 대응방식 그리고 상담실습 등  
을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진행되었다.

1차교육(여성학 교육)을 받은 16명의 교

### 반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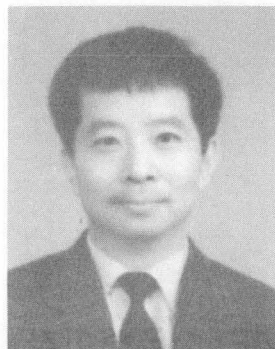
요즘 짐승의 고민

47



# 김부남 사건의 변호를 마치고

전 봉 호  
(변호사)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다른 모습을 찾아내는 일은 전체를 위하여 고무적인 일이 될 수 있다. 김부남 사건은 성폭행에 관련된 여성의 불행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내가 김부남씨를 처음 대면하던 날, 그 날따라 전주교도소 접견실 창밖에는 눈이 시리도록 짙푸른 앞산과 회색 교도소 시멘트 건조물이 뚜렷이 대비되어 처연한 느낌을 주었다. 잠시후 가냘픈 몸매에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한 하얗고 투명한 피부의 김부남씨가 교도관과 같이 들어와 멍뭉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눈물이 고인듯한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말없이 앉아있는 김부남씨에게 도움이 돼 주기 위하여 온 변호사라는 소개로 말문을 열었으나 간간이 짙막한 대답만을 할 뿐 별다른 대꾸가 없었다.

수사기록과 김부남씨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알고 있던 한 여성의 크나큰 불행과 마주 대면하고 있다는 느낌에 가슴이 막혀 있었다. 무어라 할 것인가,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이 사건의 저변에 깔려 있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인식이 자각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김부남 사건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던 성폭력 피해자 문제를 심각하게 부각시켰다. 김부남씨 사건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겪는 쓰라린 고통과 인격파괴, 죽는 날까지 지니고 가야하는 처절한 상처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이 불행한 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는 긴 역사속에서 형성되고 이 사회에 고착된 여성에 대한 차별적 구조와 여성 스스로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지닌 인식이 얼마나 불합리한가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지 않다. 그늘에 가려진 여성의 인간다움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정면으로 헤쳐 나가야 함은 물론 여성 스스로도 현실을 타개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아파하고, 쉽게 위하는 척하고, 쉽게 잊는다. 그러나 아직도 닫힌 이중윤리에 감추어진 폭력과 그로 인해 황폐해진 가슴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어둡고 추운 길을 가야 하는 김부남씨에 대한 연민과 애정, 가슴속 불씨를 모아야 한다. 마침내 김부남씨가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자신이 겪은 아픔을 지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 기다리자.■

# 성폭행의 현실과 인식의 괴리

조 성 숙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대학시절 성폭행당한 여성이 10년동안 정신질환을 앓다가 투신자살한 사건이 일어난 이튿날 아침, 한 라디오 방송의 여성프로 사회자는 “성폭행을 제수 나빠 당한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툭툭 털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지, 우리 남성들은 그 심각성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살한 여성을 애석해 했다. 또 다른 남성들도 자기 가족이 당해보지 않고는 피해자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되지 않는다고 실토하는 것을 들었다. 이것은 아마도 남성 일반이 공유하는 성범죄에 대한 솔직한 느낌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같은 남성들의 인식의 밑바탕에는 성폭행이 남성의 ‘한창 왕성한 성욕’의 발산을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저지른 ‘부도덕행위’ 정도이지 ‘범죄’라고까지 볼 수 있나 하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남성의 범죄동기나 또 사법당국의 그동안의 비도덕적인 처벌태도 등은 다 이와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도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법적 제재행위 자체가 법운영자의 이성과 감성의 산물이라고 가정한다면 성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그 담당자들이 얼마나 질실하게 피해자의 입장과 고통에 공감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의 피해와 공포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성들이 성범죄 추방운동의 하나로 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는 피해 여성들이 당하는 고통의 ‘현실’과 대부분의 남성들이 가진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의 괴리를 어떻게 좁히느냐 하는 것이다.

‘강간’이라는 말대신 쓰이는 ‘성폭행’이라는 낱말은 강간을 한날 ‘폭력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강간이 미치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의 강도를 축소, 약화시키는 느낌이 없지 않다.

강간은 뺨을 한대 얻어맞거나 물매로 온몸을 두드려 맞은 폭행과는 다르다. 강간당한 여성이 10년, 20년씩 그 악몽에서 헤어 나지 못하고 영혼이 병들어 자살하거나 범인을 죽여 보복하는 것은 단지 순결을

짓밟혔다는 정조판념이나, 신체상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인권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김부남씨의 말처럼 ‘침심’같은 행위를 체험한데서 그는 충격, 수치심, 자기 모멸감, 공포, 육체적 고통, 자책감, 자기부정, 여자라는 한, 가해자에 대한 원한 등등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최악의 정서적 상태가 복합된 ‘추악한 불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10대의 성범죄와 어린이성폭행이 만연하는 지금 강간을 넓은 의미의 ‘폭력’으로 규정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는 한 현행법 이상의 처벌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간당한 참혹한 체험이 살인이나 자살의 잠재적 동기가 되는 심리적 기제를 정신의학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한 이론적 근거위에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주장된다면 더욱 설득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 어린이성폭행

박 선 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 어린이성폭행이란

-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만 14세 미만(형사미성년자)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을 말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근친강간(아버지와 오빠에 의한 강간 등)과 일반 어린이성폭행으로 나뉜다.
-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가 있다.

- 신체 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성폭행  
말로 희롱하는 것,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일, 피해자 앞에서 옷을 벗거나, 자위행위 하는 일.
- 성기 이외의 성적 접촉을 한 성폭행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애무하는 일, 가해자의 몸을 만지게 하는 일.
- 성기를 비롯하여 성적 접촉을 한 성폭행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일, 가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일.
- 가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끼운 성폭행



- 피해자의 입에 가해자의 성기를 삽입한 성폭행
- 피해자의 질, 항문에 이물질질을 삽입한 성폭행  
가해자의 손가락, 이물질질을 삽입.
- 피해자의 질, 항문에 가해자의 성기를 삽입한 성폭행
- 돈벌이를 위해 어린이를 음란물 제작에 출연시키는 것.
- 돈벌이를 위해 어린이에게 매춘행위를 하게 하는 것.

- 어린이에게 약물이나 술을 먹이거나, 때리면서 동시에 위의 여러 성폭행도 함께 하는 것.

## 어린이성폭행을 바로 알려면.....

### 잘못된 생각 1

몇몇 어린이들만이 성폭행을 당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88년 한 해에 약 25만명의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중 10% 정도는 어린이들이 당한 것입니다.

### 잘못된 생각 2

어린이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성폭행 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

어린이들은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행을 당합니다. 심지어 아버지나, 오빠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가족에 의한 폭행은 특히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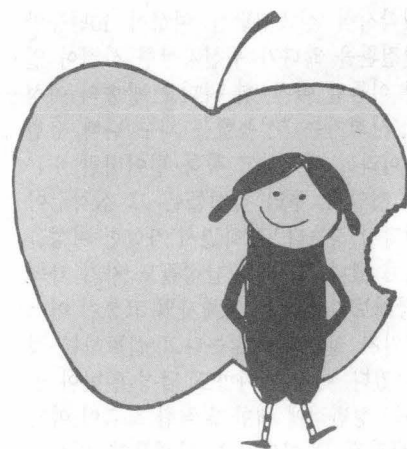
어린이성폭행은 바로 알아야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들이 가장 친밀한 가족에게서 성폭행을 당할 때 그 정신적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도 아울러 알아야겠습니다.

### 잘못된 생각 3

성폭행을 당했다는 어린이의 말은 대개 꾸며낸 것이다.

어린이들이 꾸며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어른들의 편견 때문에, 어린이들이 꾸며냈다고 보는 것입니다.



### 잘못된 생각 4

어린이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정신병자일 것이다.

많은 경우 가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정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사회생활을 멀쩡히 잘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의원이나 회사회원이 어린이에게 성폭행을 한 사건에서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생각 5

어린이들이 성폭행을 당하면 금방 눈에 땀 상처가 남을 것이다

어린이들은 몸에 상처를 입지 않고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성폭행 가해자들은 평소의 안면, 어른으로서의 권위등을 사용 별다른 저항없이 성폭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입어도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놀다가 다친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어린이들은 성폭행을 당한 사실

을 숨기려 하기 때문에, 상처를 감추려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이를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피해아동을 제대로 돌봐줄 수 없을 것입니다.

## 잘못된 생각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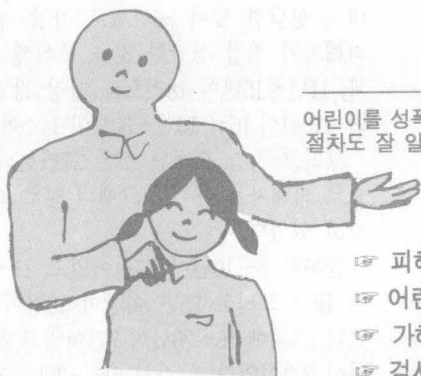
어린이들이 성폭행 피해를 입어도, 어렸을 때 일이므로 크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부남씨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렸을 적 성폭력 피해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 잘못된 생각 7

어린이들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린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된다.

어린이들을 집 밖에 내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성폭행의 60%가 집에서 일어납니다. 더구나 밝게 뛰어놀며 자라나야 할 어린이들을 집안에만 있게 하는 것은 성장에 좋지 않습니다. 어린이성폭행을 예방하려면, 이 보다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성교육을 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를 성폭행한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다음의 절차도 잘 알아두어야겠지요

- ☞ 피해자가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 ☞ 어린이는 스스로 고소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부모 등)만이 할 수 있습니다.
- ☞ 가해자가 법정대리인(예를 들어 아버지)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시효 기간은 사건발생 후 7년간입니다.
- ☞ 가해자에게 물질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 위자료청구)



##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상담 전화 : 02)522-1040  
522-1041

### 상담 범위

강간을 비롯한 추행·성적희롱·음란전화 등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정신과의사·산부인과 의사·법조인·경찰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종류

상담은 일차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만남인 면접상담과, 내담자모임으로 이루어진 집단상담이 있습니다.

### 상담 방법

여성이 겪는 고통과 피해를 개인의 잘못이나 불운으로 보기보다 사회환경 속에서 그 원인을 찾고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또한 내담자와 상담자는 서로 평등한 관계로 만나 문제를 의논하고 극복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서 내담자 역시 상담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시간

전화상담 :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토, 오전10~오후3시

면접상담 : 화·목, 오전10시~오후5시

집단상담 : 내담자모임이 이루어진 뒤에 시작.

정신과상담 : 화, 오후1시~5시(무료)

# 어린이성폭행 사례분석

— 본 상담소 어린이성폭행 사례(3월~9월)를 중심으로 —

전 연 희  
(안동대, 여성학)

얼마 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김부남씨 사건은,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이가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힘, 지식,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그 개인의 일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 주었으며, 더우기 잘 알고 있는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어린이가 성적으로 이용당할 때, 신뢰감이나 친밀성, 자율성 그리고 주체성 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것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어린이 성폭행은 다른 범죄들의 형태와는 다르게 피해가 더 심각하며 그 후유증도 오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상담소에서도 지난 8월 9일에서 10일까지 '어린이성폭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때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발표된 자료를 정리하면서 본 상담소에 9월까지 전화상담은 사례들 중 어린이성폭행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어린이성폭행 발생 정도

3월부터 9월까지의 본 상담소 상담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체 성폭행상담 418건 중에서 어린이성폭행은 123건이었다. 이것은 전체 상담 가운데 29%에 달한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어린이성폭행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피해자 분석

일반적으로 성폭행에서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다. 본 상담소에 상담받은 성폭행의 경우, 123건중 120건은 피해자가 여아이고 3건은 남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성폭행 당했을 때의 연령을 분석해 보면 13세와 12세가 각각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가 14건, 11세가 13건, 9세가 12건, 8세가 11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해 당시의 연령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국민학교 다닐 때라고 한 것이 16건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성폭행 127건 중에서 국민학생(8세~13세)은 96건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한다.

학령기 전의 어린이성폭행을 살펴보면 6세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7세가 6건, 5세가 5건이었다. 막연하게 5세에서 7세쯤

이 3건이었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 3건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4세 아동이 1건, 3세와 생후 4개월된 영아성추행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성폭행이 총 31건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연령이 상상외로 낮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표1-1〉

피해자의 피해당시연령분석

	연령	건수
학령전아동	4개월~7세	31건(24.4%)
국민학교	8~13세	96건(75.6%)
총계		127건

## 내담자 분석

전화상담에 있어서 누가 전화를 거느냐는 아마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이다. 본 상담소에 전화한 내담자를 분석해보면 그것이 잘 나타난다.

〈표1-2〉

내담자 분석표

	건수
피해자의 모	41
피해자의 부	9
본인	55
삼촌	4
고모(이모)	2
피해자의 이웃·친구	5
상담원(구미, 마산, 울산, 포항)	4
언니	2
가해자의 누나	1
가해자	1
총계	124

전화상담 총 123건 중에서 본인이 전화한 경우는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41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9건, 피해자의 친구나 이웃이 5건, 피해자의 삼촌이나 지방 상담원들(구미, 마산, 울산, 포항)이 각각 4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피해자의 고모나 이모, 언니가 각각 2건이었고, 가해자의 누나가 자신의 동생이 어린이성폭행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상담전화가 1건이었고, 또 가해자 본인이 어릴때 여동생을 강간해서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전화가 1건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들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주변인들에 의한 상담이 총 68건으로 본인

이 전화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행법에서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친고죄의 규정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건당시부터 상담까지의 시간경과분석

피해자의 현재 연령과 사건당시의 연령을 비교하여 시간의 경과를 추적해 보았다. 이것은 피해를 당한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서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분석 결과, 첫째 사건 발생 후 5년이내에 상담한 것이 66건으로 가장 높았다. 피해자가 직접 상담한 것을 분석해 본 결과, 11년~15년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5년~10년이 16건, 16년~30년이 14건이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은 37년전의 사건으로 피해자가 아직도 그때의 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둘째로 6~10년이 23건이었고 11~15년이 16건 그리고 25년 이상이 10건이나 되었다. 그외에 16~20년이 7건이었고 21~25년이 3건이었다. 따라서 6년~25년 이상이 경과한 사건이 59건으로 어린이성폭행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은폐되기 쉬우며, 또 오랜 시간이 경과해서야 그것을 객관화시켜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행에 대한 현행 법적 고소기간을 6개월로 규정한 것은 어린이성폭행일 경우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폭행 당한 사람이 뒤늦게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고소기간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표1-3〉

사건당시부터 상담까지의 시간경과 분석

월	건수
시간경과(년)	
현재~5년전	66
6~10년전	23
11~15년전	16
16~20년전	7
21~25년전	3
25년전 이상	10
총계	125



어린이성폭행은 동네 오빠, 아는 아저씨, 이웃 할아버지, 선생님 등 친근하고 믿을 만한 이웃사람들에 의해 일어났다.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상담할 때의 연령분석

피해자가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한 것을 대체로 몇 살이 되어서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직접 전화 상담한 피해자의 연령을 분석해 본 결과 16세~20세가 17건, 26~30세가 9건, 막연하게 20대라고 응답한 것이 4건이었다. 그외에 31세~35세가 4건, 36~40세와 45세 이상이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전화상담자 중에서 가장 연령이 낮은 사람은 13세의 국민학교 6학년생이었다.

〈표1-4〉

### 피해자 본인이 직접상담할 때의 연령분석

연 령	건 수
10~15세	6
16~20세	17
21~25세	12
26~30세	9
31~35세	4
36~40세	3
41~45세	3
총 계	54

위의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10대 후반이나 20대가 되어서야 어릴때 당한 성폭행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때 전화상담한 것은 총 38건으로 본인이 상담한 것의 30.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춘기 이후 성에 대해 알기 시작하면서 어릴때 당한 사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되고, 그러면서 순결문제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지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특성들

피해자들의 증상을 크게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특성으로 분류해서 분석해 보았다.

사회적 증상은 대인관계 손상 및 상실이 가장 많았다. 즉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신체적 증상은 그저 막연하게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고 열이난다고 호소한 것이 15건이나 되었다. 심리적으로는 불안, 공포, 두려움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순결상실에서 오는 피해의식도 31건으로 나타났다. 그외에도 신뢰감 상실, 남성기피증과 혐오증, 죄의식, 복수심, 억압된 분노, 자위행위 등 고르

게 나타나고 있다.

증상미상은 43건으로,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한 후 주로 어머니가 전화상담한 것인데 아직 피해자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두가지 해석을 하는데, 첫째, 어린이가 부모를 안심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명랑하고 쾌활하게 보이려고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어린이가 자신이 당한 일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자라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됨으로 위의 여러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어릴때 성폭행을 당한 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담자는 11명이었고 산부인과 치료를 받은 내담자는 6명이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분석

일반적으로 강간은 소수의 정신이상자나 일탈자에 의해 행해지는 범행일거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물에서 드러났듯이 가해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써 피해자들의 주변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상담에서도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이 125건 중에서 94건이나 되었다. 모르는 사람은 29건이었고 가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1건이었다.

〈표1-5〉

###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분석

관 계	건 수
아는 사람	94
모르는 사람	29
나타나지 않음	2
총 계	125

아는 사람을 분석한 결과 동네 오빠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는 아저씨가 19건, 동네 할아버지가 7건, 피아노학원선생과 담임선생이 5건, 공장사람에 의한 것이 1건이었다. 이렇듯이 친근하고 믿을만한 이웃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 56건이나 되었다.

근친강간을 분석한 결과 친오빠가 10건, 삼촌이나 외삼촌이 9건, 사촌 등 친척오빠가 8건, 친부가 5건, 의부가 3건, 친할아버지와 고모부가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근친강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의견이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가족 혹은 대리

가족관계'(부모, 삼촌, 숙모, 조부모, 사촌, 친척, 의부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성관계로 사회적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간의 성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근친강간은 총 37건으로 어린이 성장과정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6〉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분석

관 계	건 수
친부	5
친오빠	10
의부	3
(외)삼촌	9
친척오빠	8
동네오빠	24
할아버지	1
이웃 할아버지	7
아는 아저씨	19
고모부	1
선생님	5
공장사람	1
친구아버지	1
총 계	94

## 가해자의 연령과 직업분석

가해자의 연령을 분석해 본 결과 연령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밝혀진 것을 분석해보면, 10대가 3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10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국민학생이 6건으로 나타나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표1-7〉

### 가해자의 연령분석

연 령	건 수
10대(국민)	6
10대(중)	13
10대(고)	13
20대	15
30대	7
40대	4
50대	4
60대이상	8
연령미상	55
총 계	125

어린이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친고죄의 폐지, 6개월 고소 기간의 연장,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요구된다.

가해자들의 직업 중에서 직업미상이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석된 것 중에서 학생이 36건으로 국민학생에서부터 중고생, 재수생 그리고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무직이 8건으로 이들은 주로 동네할아버지들로 나타났다. 그 외에 보고된 가해자들의 직업을 분석해 보면, 전문직에서부터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즉 교사가 4건, 공무원, 직장인, 피아노 학원 원장, 열처리기사, 쌀배달 아저씨, 일일공부 배달원, 세탁소, 세무직원, 주방 아저씨, 공장사람, 경찰사청차가 각각 1건이었다.

## 피해장소 분석

어린이성폭행 피해장소를 분석해 보면

〈표1-8〉

### 피해장소 분석

장 소	건 수
가해자의집	16
피해자의집	19
공동거주(근친)	16
학교·학원	8
산(숲속)한적한곳	25
엘리베이터	1
화장실	3
여 관	1
빈집,가건물,지하실	5
할아버지집	1
극 장	1
교 회	1
장소미상	25
총 계	122

산이나 숲 등 한적한 곳이 2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내로는 피해자의 집이 19건, 가해자의 집이 16건, 근친인 경우인 공동거주가 16건, 친척집과 시댁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학교나 학원에서가 8건, 빈집이나 가건물, 연립주택지하가 5건, 화장실이 3건, 엘리베이터, 여관, 극장, 교회가 각각 1건으로 나타났고 인신매매에 끌려간 사례도 1건 있었다.

위의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사회에서 어린이가 성폭행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는 전혀 없다. 어린이는 언제, 어디서나 성폭행을 당할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유인방법 분석

일반적으로 어린이성폭행은 가해자가 어린이를 유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표1-9〉

### 유인방법 분석

유인방법	건 수
안면안심	34
금 품	13
질 문	9
신체,심리위협	27
침 입	17
납 처	5
위 탁	2
장 난	4
미 상	13
총 계	124

전화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웃아저씨나 오빠, 삼촌 등 아는 관계를 통해서 유인한 안면안심유인이 34건이었고, 개구리를 잡아준다고 유인한 금품 유인이 13건이었다. 그리고 00학교가 어디냐는 등 질문을 통한 유인이 9건이었다. 따라서 유인에 의한 어린이성폭행이 56건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신체적, 심리적 위협에 의한 것이 27건이었고, 침입이 17건, 납치가 5건으로 나타났다. 즉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인 위협에 의한 어린이성폭행이 총 49건으로 전체 39.6%를 차지한다. 그 외에 미상이 13건이었고 장난하는 척하면서 성폭행을 한 경우가 4건, 부모가 맡겨놓은 아이를 성폭행한 경우가 2건이었다.

## 소 결

지금까지 3월에서 9월까지 본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어린이성폭행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몇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이 글을 끝맺으려고 한다.

첫째, 어린이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친고죄의 폐지, 6개월 고소기간의 연장,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요구된다.

둘째, 연령에 맞는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해야할 것이다.

셋째, 오늘날 범람하고 있는 향락산업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 요구된다. 즉 성인 만화나 스포츠 신문, 비디오 그리고 오락 등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향락산업의 규제 또한 시급하다. 성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운동을 추진하기 전에는 날로 증가하는 어린이성폭행을 막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넷째,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 치료를 담당하는 통합된 기관의 설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 외국의 어린이성폭행 상담활동

외국의 거의 모든 단체에서는 어린이학대(Child abuse)문제 중의 하나로서 어린이성폭행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주로 어린이학대를 광범위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상담활동은 물론 성적학대나 성폭행 피해를 입은 어린이를 감지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상담원들을 훈련시켜 성폭행 예방을 위한 어린이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특히 성폭행 예방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24시간의 전화상담과 개

인상담, 집단상담(어린이집단, 부모집단, 청소년집단, 가족 등)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물론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과 유대관계를 맺어 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경찰서나 법원에까지 동행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또한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위해 쉼터를 마련해주고, 탁아활동 및 홍보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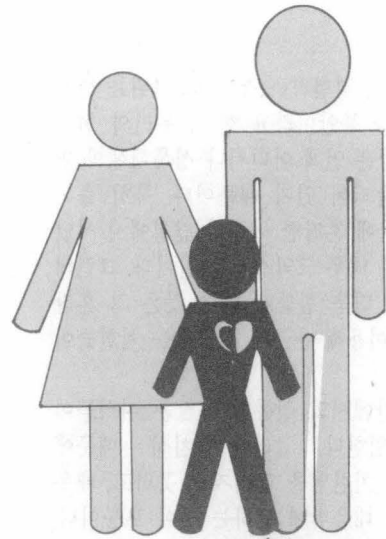


## 만일 당신의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 아이의 말을 믿어 주고 신뢰한다. 조용한 장소로 데리고 가서 쉬운 말로 질문한다.
- 아이를 보호해줄 것을 확신시킨다.
- 외상이 있을 땐 즉시 병원에 간다.
-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한다.
- 소아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전문상담소에 연락한다.

## 성폭행을 당한 어린이의 감지법

- 수면방해-악몽, 잠자는 것을 두려워함, 불켜둠, 밤에 자꾸 깬.
- 식욕감퇴.
- 화를 잘내고 성미가 급해짐-불안정.
- 야뇨증.
- 어린아이처럼 군다-평소보다 부모의 관심, 보호를 요구하고 매달림.
- 특정인물, 장소, 물건을 두려워함.
- 학교성적이 떨어지고, 학교가기 싫어함, 생활의욕의 저하.
- 나이에 걸맞지 않게 성에 관한 지식이 있는 아이.
- 어린이 또래에는 드문 질병이나 상처가 있을 때.(성병)
- 강박적인 자위행위를 할 때.



## 어린이성폭행을 예방하려면

- 아이들에게 미리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것.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몸 안은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가르칠 것.(구체적으로 질, 가슴, 성기, 항문)
- 불쾌한 접촉을 단호히 거절하도록 가르칠 것.("안돼요", "싫어요"라고 단호히 이야기한다.)
- 긍정적인 접촉(애무, 안기, 포옹, 손잡기)과 부정적인 접촉(성추행)을 가르칠 것.
- 낯선 사람의 차를 타지 말 것.
- 질문하여 같이 가자고 할때 가지 말 것.
- 공공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는 친구와 함께 갈 것.
- 집에 혼자 있을 때 문을 열어주지 말고 조금 있다가 오라고 할 것.
- 어디 갈 때는 부모님에게 누구와 함께 가는지 알릴 것.
- 낯선 사람이 잡으러 오면 가능한한 도망갈 것.
- 낯선 사람이 친구를 끌고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즉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할 것.

## 상담소의 이웃

### “좋은 일 하십니다!”

“똑똑!”

“네! 들어오세요.”

“자동차 영업소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차 살 분이 안 계시는데…”

“아닙니다.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 들렀습니다.”

“식합니다”

“아저씨! 짜장면 하나 더 갖다 주시고 김치 줘…”

“물론이죠, 좋은 일 하시는데”

하루에도 대여섯번 상담소 현관을 보고 기웃거리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 이웃을 만난다. 호기심을 넘어선 진지한 응원을 보낸다.

‘상담소의 이웃’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있다. 상담소가 낯선 거리의 건물에 집을 켜 그날부터 친절한 웃음과 봉사로 우리들을 반겨준 앞집 ‘외국어 개발원’ 식구들이다.

바쁜 이사로 미처 살림을 준비하지 못한 터라 변변히 갖출게 없었다. 필요한 것이 있거나, 고장이라도 나면 열심히 앞집 문을 두드렸다. 앞집은 우리들의 넉넉한 보물창고였다. 늘 웃으며 원하는 것 이상을 주신다. 복사, 팩스, 냉장고, 컴퓨터, 심지어 망치까지… 이런 경우를 두고 ‘물심양면’이라고 하나보다.

깊이 든 정은 종종 점심상을 함께 하고,

담소와 찻시간으로 이어졌다. 정말 울타리가 없는 앞집 사이였다.

지난 달 앞집 식구들은 사업 관계로 이사를 했다. 귀중한 세간살이는 상담소에 넘겨 주셨다. 컴퓨터와 복사기는 언제나 그분들의 따뜻한 배려를 전해주고 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오가는 인사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 좋은 일 하시는 데요.”가 아니라, “함께 해주셔서 기쁩니다.”라는 주체의식과 동참의 의미가 깃든 인사말을 서로 주고 받음이 우리 상담소의 정서에 맞지 않을까? ■

# 호신술을 배웁시다①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1위는 성폭행에 대한 불안이라고 한다. 우리의 현실에서 여성은 언제 어디서나 성폭행에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버스나 전철에서 시달리는 것은 매우 고역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여성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그 혼잡한 틈을 이용해 은근히 접근하는 치한들이다.

전철 안에서의 성폭행은 많은 여성들이 쉽게 경험한다. 그러나 수치심 때문에 큰소리로 치한임을 알리지도 못하고, 매우 소극적인 대응밖에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때에 소리내어 치한이라는 것을 밝히거나, 가벼운 호신술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한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치한을 물리치기 위해 바늘이나 핀 등의 작은 무기를 가지고 다니기도 했지만 지금부터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여 남성들이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 이번 호에는 전철안에서 빈번히 겪게되는 가벼운 성추행 퇴치법을 소개하겠다.

## 엉덩이에 손바닥을 댈 때

치한이 엉덩이에 손바닥을 댈 때에 여성은 빨리 상대방의 엄지 손가락을 잡는다. 그 다음에 겨드랑이로 상대방의 팔을 끼워 죄면서, 그 엄지를 힘껏 찢어준다. 이때 상



엉덩이에 손바닥을 댈 때

대방의 손목을 지렛대의 지렛목으로 이용하거나, 상대방의 한손 손가락 전부를 잡아 손목을 반대방향으로 힘껏 찢어주면서, 바로 위로 쳐들어 주면 효과가 있다.

## 엉덩이에 손등을 댈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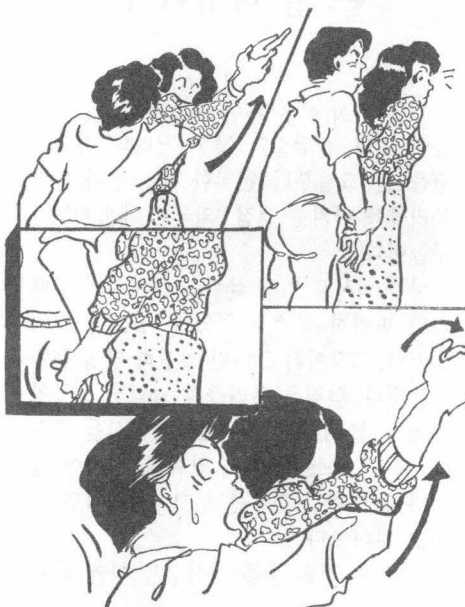
치한이 손등으로 엉덩이를 만질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을 책 잡아 끌어당기고 겨드랑이 밑에 끼워 위로 쳐든다. 그리고 이때에 치한이 만지려는 손과 악수하는 모양으로 해서 겨드랑이를 죄어주면 더 확실한 효과가 있다.

## 가슴을 팔꿈치로 건드릴 때

치한이 팔꿈치로 가슴을 찌르거나 건드릴 때에는 상대방의 팔꿈치에 자신의 손목을 넣고 남은 한 손으로 치한의 손목 부분을 누르면서 상대에게 매달리듯이 모든 체중을 얹는다. 그러면 어깨 관절이 빠게 되는데, 이것이 치한에게 과잉방어가 될 수도 있지만 따끔한 맛을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두 다리 사이로 한 발을 들이밀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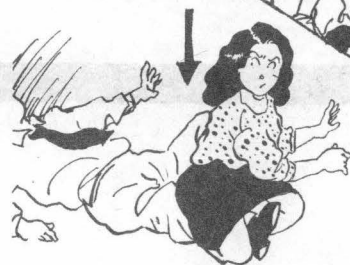
이번에는 심한 성추행의 경우로 뒤에서 한 발을 여성의 두 다리 사이에 들이밀고 무릎으로 공격해오는 경우이다. 이럴 때에



엉덩이에 손등을 댈 때



가슴을 팔꿈치로 건드릴 때



## 두 다리 사이로 한 발을 들이밀 때

는 끼어넣은 치한의 발뒤쪽에 자기의 발 앞부분을 놓아 지렛목을 만든후, 그 상태에서 주저앉거나 허리를 낮추기만 하면된다. 이 방법은 꽤 강력한 기술로, 상대방이 기댈 곳이 없을 때에는 중상을 입힐 수도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혼잡한 전철안이라면 사람의 벽이 있으므로 알맞은 충격이 될 것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과 창조적인 응용이 필요하리라 본다.■

(정리 : 김영아 나눔터기자)



# 손대지 마세요!

최 현 경  
(방송작가)

“정상인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어”

“어린게 뭘 안다고 그런 몸쓸 짓을 할까?”

일찌감치 집안을 치워놓고 정희네로 물려온 같은 연립의 여자들은 6살 여아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오늘 아침 신문기사를 얘기거리로 풀어놓았다.

“세상이 이렇게 험해서야 딸자식 마음놓고 키우겠어?”

“딸자식은 비행기 태워주고 아들 자식은 며느리 눈치밥이나 먹인다더니 이럴텐 그래도 아들이 키우기가 낫지?”

한숨을 내쉬는 은지엄마의 말을, 아들만 둘을 둔 남호엄마가 냉큼 받는다. 정희는 남호엄마의 입가에 머물러 있는 고소한 미소를 놓치지 않고 본다. 평소, 딸만 둘을 두고도 남편눈치 시때론 치 안보고 열아들 안부럽다는 당당한 기세로 남호엄마의 속을 은근히 뒤집던 은지엄마였다. “아이구, 그래! 아들만 뒤서 좋겠다. 혹시 내 딸이 그런 꼴 당할까봐 걱정이지만 내 아들이 그런 짓하고 다닌다면 그 꼴은 더 못볼 것 같애, 그러니까, 아들 제대로 키워!” “은지엄마! 지금 말 다했어?” 기어이 핏대를 세우는 두 사람을 달래 놓고 정희는 커피를 타서 한잔씩 돌렸다. 그러나 정희는 분명히 설탕을 두스푼이나 넣었는데도 커피맛이 쓰기만 했다. 7살난 딸(단비)과 4살난 아들(푸름)을 둔 정희로서는 이런 대화가 예사롭지 않다. 그런 신문기사나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남편은 딸간수를 잘하라고 하지만 제발로 뛰어다니는 딸아이의 목에 방울을 달 수도 새장에 넣어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단비의 불을 잘 쓰다듬어주는 동네 슈퍼총각의 손길도 꺼림칙하고 유난히 단비를 예뻐하는 유치원버스기사도 못미덥다. 솔직히 단비가 마주치는 모든 남자가 미심쩍은 것 같다. 이러다가 남자라면 삼촌이나 아버지도 못믿게 될 것 같아 정희는 홀로 쓴웃음을 질 때도 있었다. 은지 엄마 말처럼 딸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들을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잘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만 같다.

고민끝에 정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신문이나 잡지에 난 어린이 성폭행에 관한 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하루는 어린이 성폭행에 관한 자료를 읽고 있는데 단비가 울면서 들어왔다. 무심코 돌아보던 정희는 깜짝 놀랐다. 단비의 하얀 앞가슴에 흙탕물로 두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단비야, 이게 뭐야?”

“남호가 떠밀었어!” 분하고 억울한지 단비는 한층 소리높여 울었다. 일부러 그러기라도 한 것처럼 앞가슴의 두손바닥 도장은 선명하고 보기 흉했다. 젖망울이 터진 나이가 아니었길 천만 다행으로 여기면서 단비의 옷을 벗기던 정희는 이 일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평소 극성맞는 남호형제의 장난질은 소문이 나 있었다. 남호엄마의 입장은 사내애들이라 그럴수도 있다고 하지만 남호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이나 플라스틱총알을 쏘아대는 권총은 여자아이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결코 애교로 봐 줄 수만은 없었다. 남호엄마의 너그럽고 태평한 태도가 남호를 자연스럽게 폭력을 익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아닐까? 정희는 단비의 눈물을 닦아주다 생각한다. 지금, 더럽혀진 이웃은 갈아 입혀줄 수 있지만 이 다음에 누가 단비의 가슴에 이런 얼룩을 남겼다면 그뻘 어떤 옷을 갈아입혀 줄 수 있단 말인가?

정희는 단비의 손을 잡고 남호의 집으로 갔다.



“아니, 단비 옷이 왜 이래?”

“누가 그랬겠어요? 남호 좀 불러 주세요.”

고개를 빼고 주방을 쳐다보니 식탁에 앉아 우유를 마시던 남호가 정희와 시선을 마주치자 손살같이 방으로 내뺐다.

“남호더러 단비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하세요.”

“내가 나중에 야단칠테니 걱정하지마.”

“아니예요, 단비한테 직접 사과해야해요.”

“단비 엄마가 이해해, 사내애들이 그렇잖아?”

“언제까지 사내애라고 봐주기만 할건가요? 지나친 장난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언제 그러실거예요?”

“아니, 단비엄마가 왜 남의 자식 교육까지 걱정이야? 그 옷 이리 줘! 빨아주면 될거 아냐!”

결국 막무가내인 남호엄마와 얼굴을 붉히고 언성까지 높이다 정희는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다음 날 시장에서 남호엄마를 만났지만 서로 외면하고 말았다.

인형놀이를 하던 단비는 남동생 푸름이가 자꾸 인형을 빼앗아 이리저리 피하며 징징거렸다. 그런 두 남매를 보고 있던 정희는 남호엄마만을 탓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아이는 장난이 심하고 별나게 굴수록 씩씩하다고 배워왔고 남자에게서 얻어맞고 울고 들어오는 것이 여자애인 줄 알았다. 정희가 자랄때 아무도 남자와 맞서 같이 싸우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 남호엄마나 정희는 배운 그대로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셈이었다. 정희는 서랍을 뒤져 단비의 원피스 수영복을 찾아와 영문을 모르고 의아해하는 단비에게 입혀 주었다.

“단비야! 네 몸을 한번 봐. 이 수영복으로 가려진 이 안에 부분은 너 혼자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된다고 그래, 소리를 질러도 좋고 음, 다급하면 때려줘도 좋아.”

“누구? 남호?”

“그래, 누구든지. 음-저기 누가 단비를 만졌을때 무섭고 아프거나 싫은 기분이면 싫다고 해야 돼. 나이가 많은 어른이든 친구이든 단비를 괴롭히면 안돼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엄마의 말뜻을 제대로 알리 없는 단비는 초롱한 눈망울을 뜨고 말꼬리미 정희를 바라보기만 한다. 정희는 왈카 단비를 끌어 안았다. 단비를 여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키워야한다는 자각이 새삼 정희를 기운나게 했다. 부당하고 억압하는 힘에 당당하게 항거할 줄 아는 인간으로 말이다. 단비의 어린 어깨를 토닥이며 정희는 내일 남호엄마를 찾아가 화해를 청할 결심을 했다. ■

# 성의 역사 ①

김정희

(서강대, 여성학)

## 선사시대

### 1. 원인(原人 : hominid)시대

후에 인류로 진화하게 될 원시적 선인류(先人類)를 원인이라고 한다. 이 원인도 진화단계에 따라 라마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등으로 분류되는데, 최초의 원인인 라마피테쿠스는 5백 만년 전에서 1천 만년 전 경에 지구상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원인들은 현생인류인 현대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는 하나 인류 진화과정의 99%의 기간이 원인 시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인간 삶에 대한 이해에서 이 시기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원인시대는 전체적으로 온화한 기후였다. 따라서 원인들의 생계는 풍부한 과일, 땅콩과 같은 견과류, 감자, 고구마 같은 뿌리식물 등을 채집함으로써 해결되었다. 간혹 고기를 먹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도 전문적인 사냥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육식동물이 먹다 버린 부스러기 고기들이나 토끼 새끼나 타조알이 전부였다. 토끼 새끼나 타조알은 인간보다 약한 동물의 새끼나 알을 약탈하는 것으로 채집에 가깝고 사냥이라 부를만한 행위는 아직 못되었다.

이렇게 남녀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구분되지 않는 채집이 주생계 방식이었다는 점과 임신과 남성의 역할은 물론, 암수구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들로 인해 이들의 무리는 모(母)중심적일 수 밖에 없었다. 즉 원인들은 아직 정착생활을 하지 못하고 채집하여 계속 행군하는 생활을 한다. 이동은 수십명이 한 단위가 되는 무리(horde)였는데, 이 무리는 어머니, 어머니의 여자 형제와 그 자식들로 구성되는 집단이었을 것이다. 통합의 중심점은 여성 또는 어머니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생활방식에서 성관계는 물가와 같이 서로 다른 무리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곳에서 다른 무리에 속하는 상대와 우연히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직 성관계는 가족 유사 집단인 무리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부쉬맨, 피그미족과 같이 비교적 최근까지 채집수렵 생활을 영위해 온 부족들을 보면 젊은이들간의 혼전 성관계는 일종의 놀이로 여겨져 자연스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구타나 매질이 여성들을 남성에게 종속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규범화되어 있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드물게나마 여성에 대한 강간이나 구타가 존재한다. 즉 몇명의 남자들이 여자를 숲속에 끌고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거나 남편, 부모, 남자 형제가 여자를 매질하는 예가 보고된다. 지극히 원시적인 이런 단순사회에서 보고되는 강간, 구타는 인간의 못된 품성을 인간 문명사회가 만들어낸 부산물로만 볼 수 없게 한다. 즉 인간은 본래적으로 지극히 선하지도 지극히 악한 존재도 아니며 동물적이기 때문에 문명에 의해 순화될 필요가 있는 막되어 먹은 본능, 양자를 지닌 모순된 존재인 것 같다. 어쨌든 이런 강간이 원인들에게 드물게나마 일어났다면, 이는 서로 다른 무리간에 싸움을 유발시키기도 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반적 성관계 모습은 다른 무리에 속한 상대와 본능에 따라 일회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이었다.

### 2. 대모신(大母神)시대

지금부터 7만 5천년 경이 되면 지구는 빙하기가 시작된다. 이 빙하기 전기를 대표하는 원인이 전기구석기의 네안데르탈인(Neanderthals)과 후기구석기(3만5천년 경시작)의 크로마뇽인(Cromagnon man)이다. 후기구석기는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 우리 현대인의 직계 조상인 만큼 매장의 풍속이라든가 무덤 앞에 꽃을 바치는 풍습 등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문화적 면모를 보인다. 현대미술가의 그림이라 해도 손색없을 만큼 훌륭한 알타미라 동굴벽화도 이들의 작품이다.

인간에는 여, 남 두 성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 것도 이 단계에 와서 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당시의 동굴들에서 나타나는 지배적 유물이 남녀의 생식기 조각물들이기 때문이다. 가구가 출현한 것도 이 단계의 일이다. 그러나 핵가족은 아직 완전한 생계의 단위가 되지 못했다. 기후의 변화로 생계가 주로 사냥에 의존하게 되면서 여름에는 몇몇 가족이 모여 사슴떼를 쫓는 집단생활을 하고 겨울에는 단일가구 단위로 소형동물을 잡으며 살았다.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의 동굴도 3~4명 또는 8~10명 규모로 다양하게 발견된다. 이 때

의 가족이 생물학적 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었던가는 확실치 않다. 왜냐하면 생물학적 가족의 구성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변수는 인간이 임신과 남성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후기구석기인들이 이 점을 인식했는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또 설사 관계를 알고 있었다해도 모계 트로브리안드(Trobriand) 부족처럼 남자는 자식의 형상에만 관계하며 피는 어머니쪽 혈통에서 온다고 믿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확실히 답하기 어려운 이 문제는 무척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부 인류학자와 여성학자는 남성의 생명생산(임신, 출산)으로부터의 소외가 아이를 자기것으로 하고 여성의 노동과 성을 통제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에서 보면 남자가 모계를 전복하고 소외를 지배로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는 남자가 생명생산에 필수적으로 관여된다는 지식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

후기구석기 전기와는 달리 동 시대 후기에는 여성의 생식기(음문, 허벅지, 유방)를 확대, 과장한 여성 조각물들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그릇등에 남근과 같은 남성상징이 분명하게 조각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어떤 학자는 약 1만년 전쯤의 후기구석기 말기에 계보가 부계로 계승되며 남자가 여자의 성과 노동을 통제하는 가부장제가 출현했다는 견해를 펴려한다. 그러나 최근 마일즈(Rosalind Miles)라는 여성사학자는 후기구석기, 신석기, 철기시대에 이르는 고고학 유물의 분석과 신화 분석을 통해 대모신(Great Mother Goddess), 혹은 여신시대로 칭할 수 있는 모계시대가 후기구석기부터 BC 3500년경 전, 철기가 세계적으로 보급되기 이전까지 존속하였음을 주장하고 나와 주목을 끈다. 마일즈의 설명을 따르자면 생명생산에서의 남성역할이 발견되어 생명의 원인으로 해석되는 것은 철기시대가 도래할 무렵의 어떤 지점이 될 것이다. 한편 마일즈의 대모신시대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 어머니'하고 기도하던 시대가 인류역사상 적어도 2, 3만 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이니 자못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다음 호에서 계속해서 대모신 숭배에 대한 그녀의 설명을 들어 보기로 하자. ■

(계속)



## 이제는 말하자

— 직장내 성폭행 —

**문** 저는 22살로, 올 3월에 지금 다니는 사무실은 남자 직원이 대부분이고, 여직원은 저를 포함해 세명입니다. 남자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책상 앞 뒤로 주고 받는 농담은 얼굴을 들기 어려울 정도인데, 치마를 조금 짧게 입은 날은 이상한 눈길로 몸을 훑어내리는 소름끼치는 경험을 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복도에서 한 남자 직원이 무심결에 부딪히는 척하다 몸을 만진 일이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얼굴만 붉히다 울고 말았는데, 그 뒤로 종종 등에 손을 댄다든가, 엉덩이를 건드리는 일을 당하고나니, 누가 옆에만 다가와도 몸이 움추려 들고, 신경을 쓰다 보니 골치도 아프고, 다들 나를 놀리는 것 같아 직장에도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여러종류의 불쾌한 성적인 언어나 행위로써 여성에게 굴욕적이고 불쾌한 감정이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도 하나의 성폭행입니다.

직장내 성폭행은 피해여성이 직장을 그만 두지 않을 경우 최초의 성폭행은 장기화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피해여성은 정상적인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폭행이 일어나는 장소를 피한다는 것은 직장을 당분간 혹은 영영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업안정성을 저해하며, 때로는 직장내에서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장내 성폭행의 피해 여성은 남성이 성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되며,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해 옷 매무새를 고치거나 하는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안됩니다. 직장내에서의 이러한 성적 괴롭힘은 남녀간의 힘의 불균형과 전통적인 성역할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마음에 묻어두지 말고 가족, 동료, 친구 중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여성동료들에게 자신의 피해경험을 얘기하고 다른 동료도 그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해자에게 그 사람이 한 말이나 행위가 성폭행임을 이야기하고 즉시 그러한 것을 중단할 것을 경고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눈을 똑바로 응시한 채 본인의 생각을 확실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또한 동료 직원과 동행하여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는 것이 어려우면 편지를 쓰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이 경고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등기로 부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전문 상담기관이나 조합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모면하면 된다고나, 나 혼자만 참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주위 남녀 동료들과 공유한다면,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느낌을 솔직히 표현하십시오! ■ (상담 : 임순영)

## 책이야기

### ‘강간당한 남자’를 읽고

조 중 신  
(주부)

대학가 저점 몇 군데를 둘러봐도 이 책이 있는 곳이 없었다. 문의하는 나를 무안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대형서점에서도 진열대에 전시되지 않아 점원을 두번이나 체근하여 한참 기다려서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요즘같이 적나라하게 야한 세대에 결혼한 지 십수년에 아들, 딸 낳아 두리무실한 나이 사십의 내가 어색하고 무안하게 발음해야 했던 ‘강간당한 남자’는 스웨덴의 여성작가 마타 티카넨의 소설이다. 그녀는 교육자로 활동하면서 소설과 시를 쓰는 한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주인공 토바 랜더스는 남편과 헤어져 두 아들을 키우며 도서관에서 일하는 여성인데, 40세 되는 생일에 우연히 술집에서 만난 남자에게 치욕적인 수모를 받으며 강간 당한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복수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맞본 굴욕과 수치를 고스란히 맛보게 하도록 그를 강간한다.

치밀한 계획과 실행과정에서 그녀가 떠올리는 그녀 주변의 인간관계를 통해, 그녀는 한 개인이 아니라, 여성들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억압받고 소외되며 도구화되고 있는가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부당하고 모순된 인간관계, 법률, 사회인식에 분개하고 이에 맞서 싸워서 고쳐보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 흥미위주의 복수극이 아니라, 상세한 심리묘사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유린당했을 때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자기존엄성을 수호하고자 단호하게 실천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녀는 거짓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자기와 남을 억압하거나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모순된 법률이나 사회의식, 편견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굴종시키고 자기과시의 부속물로 여기는

남편과 헤어졌고, 여자의 공포와 불안도 아랑곳없이 자기의 남성을 확인하려는 애인파도 헤어진다. 또한 직장동료들과 상사와도 진지하게 대화하고자 하며, 남성으로 성장하는 두 아들이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정직한 이야기를 시도해본다. 자기에게 굴욕과 고통을 준 강간범에게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이 아니라, 억압하고 유린해온 남성들도 모욕받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강간당할 수 있으며, 그 폭력이 얼마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인가를 알려주고자, 한 인격체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도전하고 요구하여 인정을 받아 내려고 했던 것이다.

즉, 그녀는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며 살려고 했던 것이다. 마침 성폭행한 남자를 살인한 김부남씨 사건으로 세간이 분분한 이때에 하나의 시각과 입장을 세우는 힘있는 소설이라 여겨진다. 대립하고 대결하는 적대적인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보완하고 공존하는 ‘나란히 서는’ 여성과 남성의 올바른 만남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끊임없는 질문에 빠져든다. ■

### 〈나눔터〉는 격월간으로 발행됩니다

편집위원장 : 조성숙

편집위원 : 김효선, 박미라, 신미정, 이미경, 이숙진, 이영숙, 정경자, 최현경, 김영아, 장윤경.

펴낸날 : 1991년 10월 30일

펴낸곳 :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우)137-600

전화 : 02)522-1042, FAX : 02)522-1041

편집디자인 : 인쇄 : 한국매체연구소

#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상담원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여성학교육/상담원교육)을 마치면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

〈성폭력 상담소〉의 기본재정은 후원회비로 충당됩니다.

고통받는 피해여성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마음에서 크고 작은 정성을 모아 상담소의 한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친지, 친구, 이웃 중에 상담소의 취지에 공감하시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후원회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해 주십시오.

후원회원이 되시면 한가족으로서 모든 상담소 활동에 참여의 기회가 열립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초청하고 본 상담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와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물품기증

상담소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사무용품 등)

## 자원봉사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여러 활동(번역, 사무보조, 자료정리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522-1042)

## 회비 보내는 방법

보내고자 하는 돈을 일시를 또는 분납하셔도 됩니다. 보내시는 분의 성함을 적어서 다음 은행 온라인 계좌나 지로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뒤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 ● 온라인 계좌번호

국민은행 : 009-01-1176-632	성폭력상담소
농협 : 037-01-194301	성폭력상담소
조흥은행 : 308-01-133092	성폭력상담소
한일은행 : 015-040018-01-001	성폭력상담소
● 지로번호 : 7533156	성폭력상담소

# 나눔터 알림판

## 어린이성폭행 추방을 위한 한마당 열기로

1981년 보고타 콜롬비아에서 열린 라틴 아메리카 페미니스트 모임은 11월 25일을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날로 정해 각 나라에서 매년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날은 1960년대에 도미니카 독재공화국에 의해 세자매가 고문과 성폭행을 당한 후 죽임을 당했던 날이다.

현재는 라틴아메리카 뿐 아니라 구미 여러 나라에서도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금년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성폭력 관련 단체 지도자 워크샵에서도 보 다 많은 나라가 이를 기념하고 세계적 연대를 갖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올해부터 기념하여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로 하고, 본 상담소에서는 11월 23일, 어린이성폭행 추방을 위한 한마당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추애주(본 상담소 자문위원, 연대 여성학) 이사가 서초동 센츄리 오피스텔 1208호를 교육관으로 빌려주었다.

코넬부인회와 부산여고 22회 동창 모임에서 본 상담소에 후원금을 내주었다.

## 「어린이성폭행」 피해자 부모 대책 모임을 가질 예정.

어린이성폭행은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아직까지 사회적 대책이 전무한 형편이다. 특히 어린이성폭행은 피해 어린이는 물론 그 부모들에게도 막대한 고통을 준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피해자 부모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락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02)522-1042

11월 23일(토), 오후2시~5시, 역삼동 계몽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어린이성폭행 추방을 위한 한마당”을 열기로 하였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공개토론회와 노래마당, 연극마당 그리고 호신술 강좌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10월 30일 현재 59명이 신규후원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좋은 일에 함께 해주셔서 기쁩니다.

## 〈신규 후원회원〉

강성희, 공소라, 권혁희, 김강자, 김경애, 김경은, 김경자, 김성민, 김수영, 김순형, 김영희, 김은경, 김진숙, 김현민, 김혜경, 김효숙, 박계현, 박봉주, 박수혜, 서혜정, 손경란, 손인실, 송인희, 신경순, 신윤미, 신은수, 안정애, 양미선, 염정자, 오창석, 우경아, 유재경, 이은주, 이종두, 이종임, 이주희, 임완철, 장윤경, 전현주, 전훈숙, 정선아, 정영애, 조옥생, 조진영, 차인순, 차정화, 최경순, 최미영, 최순희, 최영남, 최현경, 탁선희, 최영숙, 이상숙, 조인선, 황금순, 윤은숙, 이봉주, 최정복.

## 〈신규 이사〉

박성동, 강성희, 한정자, 김영의.

## 소식지 「나눔터」를 받아보려면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아니면 1년구독료 5천원을 시중은행 지로(99)창구에 납입한 후 「성폭력상담소」에 주소를 알려 주시면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나눔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